

멀티코드-CDMA 와 멀티코드-배직교변조 시스템에서 출력신호의 정 진폭화를 위한 부호화 방식과 시스템의 성능 비교 분석

*김범석, *유해선, *김명진, **김성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iceboys2@empas.com, *gotjs4811@hanafos.com, *mjkim@hufs.ac.kr, **ship@icpc.ac.kr

An analysis of constant amplitude precoding schemes and performance for multicode-CDMA and multicode-biorthogonal modulation systems

*Beom Suk Kim, *Hae Seon You, *Myoung Jin Kim, **Sung Pil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Info. & Comm. Polytechnic College

요 약

멀티코드-CDMA 시스템은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나 높은 PAPR(peak-to-average power ratio)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PAPR 을 낮추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선 코딩기법을 이용해 정 진폭을 유도하는 세 가지(페리티 발생기와 논리 변환기를 사용한 멀티코드-CDMA 심볼의 정 진폭화 방식(CAMC)[1], 4x4 Hadamard 변환기와 페리티발생기의 반복적 연산에 의한 멀티코드-CDMA 심볼의 정 진폭화 방식(RGCA)[2], 멀티코드- 배직교변조 입력의 사전 부호화에 의한 전송 심볼의 정 진폭화 방식(CA-MBCK)[3])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비교분석 한다. CA-MBCK 시스템은 코드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오율 성능이 좋으나, 대역폭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반면에 RGCA 시스템은 대역폭 효율이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좋지만, 비트오율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CAMC 시스템의 비트오율 및 대역폭 성능은 RGCA 와 같으나, 코드의 길이가 한정된다.

I. 서론

무선 환경에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멀티코드-CDMA 변조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 는 확산코드의 합이 멀티레벨이 되어 전송신호는 높은 PAPR(peak-to-average-power-ratio, 최대 전력 대 평균신호 전력비)을 갖는다. 송신기의 높은 PAPR은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에 의해 송신 신호를 왜곡시키고 증폭기의 전력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PAPR을 줄이면 송신기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휴대용 이동시스템의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PAPR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드-CDMA 시스템에서 멀티코드의 합이 정 진폭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코드-CDMA의 입력 비트열을 부호화하고 출력을 논리 변환하는 방식[1], 기본 4x4 Hadamard 변환기와 페리티 발생기의 반복적 연산에 의한 멀티코드-CDMA 심볼의 정 진폭화 방식[2], 그리고 멀티코드-배직교변조 입력의 사전 부호화에 의한 전송 심볼의 정 진폭화 방식[3]을 고려하였다. 각 전송 방식에서 출력의 정 진폭화 방식과 대역폭 효율, 그리고 시스템의 비트오율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절에서는 멀티코드-CDMA 와 멀티코드-배직교 변조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3 절에서는 멀티코드-CDMA 와 멀티코드-배직교 변조에서 전송 신호의 진폭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아 본다. 제 4 절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대역폭 효율을 비교하고, 수신기의 비트오율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은 맺는다.

II. 멀티코드-CDMA 와 멀티코드-배직교 변조

멀티코드-CDMA 시스템은 정보 비트열을 다수 개의 채널로 직병렬 변환하고 확산코드와 곱한 후 더하여 만들

어진 멀티레벨 신호를 반송과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그림 1에 송신기의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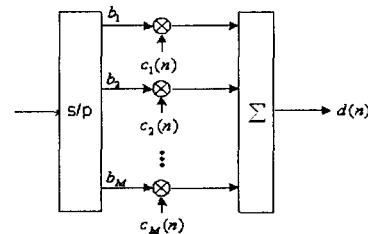


그림 1. 멀티코드-CDMA 송신기

전송채널의 개수가 M 일 때 직교코드들의 선형조합인 $d(n)$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n) = \sum_{m=1}^M b_m c_m(n) \quad (1)$$

여기서 $b_m \in \{1, -1\}$ 은 m 번째 입력 정보 비트이고 $c_m(n) \in \{1, -1\}$ 은 m 번째 직교코드의 n 번째 침을 의미한다. 멀티레벨 신호 $d(n)$ 은 추가의 확산코드와 곱해지고 반송과 변조되어 전송된다.

직교(orthogonal) 변조에서는 k 비트의 데이터에 의하여 2^k 개의 길이 2^k 비트 codeword 중 한 개가 선택되어 전송된다. Walsh 코드가 직교코드로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는 $2^k \times 2^k$ 크기의 Hadamard 행렬에서 k 비트의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한 개의 행이 선택되어 펠스 생성기를 거쳐 전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직교(biorthogonal) 변조에서는 k 비트의 데이터에 의하여 2^k 개의 길이 2^{k-1} 비트 codeword 중 한 개가 선택되어 전송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2^k \times 2^{k-1}$ 크기의 codeword 행렬에서 k 비트의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한 개의 행이 선택되어 펠스 생성기를 거쳐 전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k \times 2^{k-1}$ 크기의 codeword 행렬은 식 (2)와 같이 $2^{k-1} \times 2^{k-1}$ Hadamard 행